

조선대, 한지붕 두 총장 선거 치를 판

교수평의회 독자적 선거 결의에 이사회, 초빙 공고 맞불

조선대 이사회가 총장 초빙 공고를 내고 본격적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교수·직원 등 구성원들이 총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라 파국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조선대 이사회는 7일 오후 조선대 총장 임후보자 자격 및 심층면접심사위원회를 열고 총장 초빙공고를 8일 게시하고 18일

까지 응모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심층면접심사위는 응모가 마감되는 대로 응모자 자격을 심사해 임후보자를 결정하고 선거인단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2명을 총장 후보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을 선임하고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대학 교수평의회가 지난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총장 선거 참여 비율에 대한 이사회 결정을 거부하는 한편, 이사회를 제외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 중심의 총장 선거를 치르기로 한 만큼 자칫 두 총장 선거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들의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선대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로 정작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 총의를 결집하는 구실적 역할을 하기는 커녕, 갈등과 분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사회는 총장 임명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도 무책임한 대자협 주도 선거를 강행하는 교수회에 대한 시선도 굵지 않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5·18 묘지서 임진각까지 '평화의 자전거' 달린다

전국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전국의 청소년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임진각까지 자전거를 달린다.

7일 광주YMCA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을 슬로건으로 오는 26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를 출발해 다음달 1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도착하는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에 참가한다.

이번 자전거 국토순례에는 전국 23개 지역 청소년, 중국·일본 대학생 등 모두 357명이 함께한다. 이들의 순례 코스는 광주-고창-군산-광주-평택-안산-고양-파주로 모두 499km 구간이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안산에 들러 합동분향소를 참배하고 지역 청소년들과 거리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역사와 분단의 현장을 둘러보며 동북아지역의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



천진난만 '짚풀교실' 7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동장 박재홍) 주민센터에서 전원이민이집 원생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짚풀을 이용해 새끼꼬는 법을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5 해질 19:50
 달돋이 09:08 달질 22:24

'볼레지수 높아요'

구름이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었다.

광주	구름많고기름비	22/33	보성	구름맑음	22/30
목포	구름맑음	22/30	순천	구름맑음	23/31
여수	구름맑음	23/28	영광	구름맑음	22/31
나주	구름맑고기름비	23/33	진도	구름맑음	22/30
완도	구름맑음	22/30	전주	구름맑고기름비	23/30
구례	구름맑고기름비	22/33	군산	구름맑음	23/29
강진	구름맑음	22/30	남원	구름맑고기름비	21/30
해남	구름맑음	22/31	홍산도	구름맑음	20/26
장성	구름맑고기름비	22/29			

지역	종류	파고(m)	시간
서해	앞바다	중~남동	0.5~1.0
	남부	중~남동	1.0~2.0
남해	앞바다	중~남동	0.5~1.5
	서부	중~남동	1.5~2.5

목포	밀물	썰물
	04:57	10:03
	16:58	22:07
여수	밀물	썰물
	11:37	05:27
	00:00	17:34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	☁	☁	☁	☀	☀	☀
23/29	23/29	23/29	23/29	24/30	24/30	24/30

광주동부서장에 장영수 등 경찰 총경 인사

경찰청은 7일 광주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에 강철원 영암서장을, 전남청 홍보담당관에 백영석 치안지도관을 발령하는 등 총경급 266명에 대해 하반기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경찰청은 정보과장에 김재석 남부서장, 보안과장에 오운수 서부서장, 생활안전과장에 김영근 동부서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동부서장에는 장영수 보안과장, 서부서장은 이우진 진도서장, 남부서장은 권영만 홍보담당관이 각각 발령났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청문감사담당관에 박규석, 생활안전과장 신기선, 여성청소년과장에 장익기 치안지도관을 각각 총경으로 승진, 임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방으로 간 31사단 예비군 훈련

“진짜 철원까지 올라가나요?” 육군 제31보병사단 동원예비군 500여명이 지난 6일 전방입소했다. 드라마 '신고함나다'의 배경이 된 강원도 철원 청성부대다. 청성부대는 중부전선 철책을 지키는 전방부대다.

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유사시 전방지역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고, 전방지역의 대량피해 발생 시 대대 단위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대대급 부대로 구성되어 창설되는 부대다.

창설식을 마친 동원보충대대 예비군들은 곧장 19대의 차량에 나눠타고, 장성역으로 이동해 전세열차를 올라 경기로

연천으로 출발했다. 연천역에 도착한 후에는 다시 차량으로 옮겨타 최종 목적지인 강원도 철원의 숙영지로 도착했다.

훈련 2일 차인 7일 아침이 밝아 한여름에도 서늘한 전방지역의 아침 공기 속에 울려 퍼지는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예비군들이 눈을 떴다.

이들은 이날부터 전방사단 산하 연대 소속을 전환, 개인·공용화기를 받고 훈련 전지에 투입돼 전술 훈련을 받았다.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전지에서 예비군들이 직접 장애물을 설치하고 공화기를 배치하는 등 전투준비를 하는 동안 모두가 예비군이 아닌 현역시절 전투원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8일 3일차에는 전방에서 복귀하는 기차 안에서 소감 발표와 작별의 시간을 갖는다.

훈련에 참가한 정화원(24)씨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 전방으로 이동해 훈련하니, 실제 훈련처럼 긴장하며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훈련을 총괄 추진한 31사단 동원지원단장 임남선 대령은 “안보 상황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이 모두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검찰, 메타프로방스 불법대출 담양군청 압수수색

검찰이 메타프로방스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담양군청을 압수수색했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수사관을 보내 담양군청 행정과와 경제과, 투자유치단 사무실에서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 이뤄진 불법대출을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민)는 지난 4월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수재)로 사업을 주도한 실질대표 A씨와 금융기관 직원 B씨, 브로커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 전남의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추진하면서 48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